

비어가는 가슴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제주잠녀] 104. <2부>밭로 덮는 잠녀들의 삶 (75)제주시 동귀어촌계

등록 : 2008년 02월 04일 (월) 16:41:45
최종수정 : 2008년 02월 04일 (월) 16:41:45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겨울 바람이 먼저 '휘'하니 지나간 바다에 길 하나가 눈에 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지나기 위한 것은 아닌 듯 한 그 길은 이전 툇천초 작업이 돈벌이가 됐을 때 경운기가 다녔던 길이었다고 했다. 잠녀들의 푸짐한 수다가 쏟아질 만도 하련만 아직 그곳엔 찬바람이 먼저다.



▲ 동귀어촌계 바닷길

△바다 대신 물작업 나선 잠녀들

2월 동귀 바다에는 진줄 양식장 작업이 한창이다. 1년에 몇번 날을 정해 진행되는 양식장 작업을 할 때마다 전복도 20kg이상씩, 오분자기도 줄잡아 30kg는 거둬 올린다.

물에 드는 잠수가 10명 안팎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꽤 쓸쓸하다.

10년전만 해도 소라 실적만 4만~5만kg에 이르는 등 '괜찮은'바다였다. 지금은 1년에 채 500kg도 나지 않는다. 제주바다 곳곳이 그렇듯 이곳 역시 바다 가뭄(백화 현상)이 심했다.

거기에 지난해 태풍 나리의 후유증도 컸다.

동귀 바다에만 미수천과 구릉내, 외도천 등 큰 하천이 흘러들면서 생채기도 컸다.

감태가 많았던 바다에 대한 향수 역시 진했다. 강창송 동귀어촌계장(67)은 "나리 이후 바다 속이 쓰레기장이 됐다고 잠녀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걸어낸 바다 쓰레기를 아직껏 치우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감태가 많았던 바다에 대한 향수 역시 진했다.

강창송 동귀어촌계장(67)은 "나리 이후

그나마 종패 사업을 한 것이 적잖게 효과를 내면서 잠녀들이 작업에 나서기는 하지만 실적은 아직이다. “10명이 작업한 것을 모아도 한번에 3~4kg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툇이나 천초를 통해 얻는 수익이 1년 수익의 전부인 셈”이라고 혀를 찼다.

지난해 동귀어촌계에서는 툇 350포대(1포대 당 30kg)·천초 470포대(*)를 수확했다. 여기서 얻은 수익금이 6000여만원. 갈수록 훌쩍해지는 잠녀들의 전대를 가능할 수 있다. 이곳 잠녀들도 바다에서 소라나 전복을 따는 대신 부추 작업을 하는 날이 더 많다.

그래도 천초·툇이 많이 나는 ‘검은여’며, 종지여·드레여·진여·도린여·가린여 같은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다. 투석사업이며, 종패사업이며 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안 해본 것이 없다.

강 어촌계장은 “앞으로 종패사업도 ‘가능성’있는 곳을 골라 해야 한다”며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해가야지 나눠주기식이나 선심성 행정용으로 종패사업을 진행한다면 잠녀들의 상실감만 키우게 된다”고 경고했다.



▲ 동귀어촌계 서쪽바다



▲ 동귀어촌계 바다 원담

△아직 가능성 남아있는 바다

강 어촌계장은 전국자율관리어업지도자협의회와 제주자율관리어업지도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만큼 바다에 대한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동귀어촌계에서는 지난 2004년 전복종패사업에 손을 댔었다.

의욕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등 투자를 했지만 현실을 만만치 않았다. 종패 관리를 위한 전기세만 한달 2000만원이 넘어섰고 먹이로 사용하는 '감태'는 타 지역에서 사와야만 했다.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면서 벌써 2년 가까이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생각 역시 단호하다. 1년 동안의 사업내용을 심의해 사업비를 받는 데 대해 불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국자율관리어업지도자협의회장으로의 입장이다.

전국에 80개가 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있고 동일 선상에서 서류 심사와 실사 조사를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어촌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어촌계장은 "'자율관리어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도니까'는 통하지 않는다"며 "사업비를 확보하고 바다에서 수익을 얻겠다는 적극성 없이 지금까지처럼 주면 받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다는 늘 자리를 지키는데 사람들은 자꾸 바다가 멀어진다고 말을 한다.

돈벌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바다와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면 그 마음을 읽어야 한다. 생각해 보니 바다는 한번도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특별취재반=김대생 인터넷팀 차장·고미 사회경제팀 차장, 해녀박물관

‘발로 달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산지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